

The Media Korea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동산 홀딩스 손한평 사장 ... 제 2의 도약을 알리는 준공식 열려

제5대 인도네시아코참 회장에 송창근 KMK회장 취임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KOCHAM) 제5대 인도네시아 코참 회장에 송창근 KMK 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송 회장은 2013년과 2016년 제3대, 제4대 인니코참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3회 연속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취임행사는 땅그랑 BSD에서 열렸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김창범대사를 비롯해 박재한 한인회장, 신기업 한인회 명예고문, 이종윤 코파 수석부회장, 안창섭 코가회장, 채만용 땅그랑반트한인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와 코참회원사들이 참석해 코참 5대 출범식을 알렸다.



송창근 5대회장은 취임사에서 코참의 역할과 존재가 한 인기업의 위를 꼭 필요 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코참은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체라고 말했다.

김창범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코참을 비롯해 암참, 재팬 클럽과 영향력있는 목소리를

함께 높여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인기업을 위해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지 지혜를 모아 함께 헤쳐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재한 한인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화합과 융화로 잘 이끌어 나가주신 송창근 회장에게 감사 드리며 한인사회에 더욱 성장해 나가는 코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행사에 스타트업기업 투자설명회 까지 함께 열어 명실상부 코참의 색깔과 이념을 살린 뜻있는 5대 출범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니 정부, 내년 공휴일 및 르바란 연휴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7일, 2020년의 공휴일과 유급휴가일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공휴일은 총 16일이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은 5월 24일(일)~25일(월)로 설정했다.

르바란 연휴는 5월 21일의 공휴일(예수승천일, Kenaikan Isa Al-Masih)과 22, 26, 27일

3일간의 유급휴가일을 비롯해 토요일을 합치면 총 7일간의 연휴가 된다.

유급휴가일은 르바란 전후 3일 및 12월 24일(크리스마스이브)의 총 4일이다.

한편 올해 공휴일은 총 16일로 르바란에는 최장 11일간 황금연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수까르노-하따 공항 제3활주로 개통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앙가사 뿌라2(PT Angkasa Pura2, AP2)는 최근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제3활주로를 지난 15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콤포스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간 항공사 NAM 에어의 서부 깔리만판 뽀띠아낙-자카르타 항공편이 이날 상용기로 처음 사용했다.

현재 이 활주로의 길이는 2,500미터로 11월에는 3,000미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까르노-하따 국제 공항의 이착륙 횟수는 시간당 114회, 여객 취급 능력은 연간 1억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앙가사뿌라2는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에 제4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메가와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남북통일 지원은 아버지 당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참석...오랜 기간 ‘평화 중재자’ 역할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9일 “남북통일을 지원하고, 두 나라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이 되라는 것이 아버지의 당부였다” 고 말했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2001~2004년 5대 대통령을 역임한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노



▲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2019.8.29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2002년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했

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위한 특사가 되길 부탁하셨다”며 “남북을 자주 왕래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께 한국을 방문하라고 권유도 했지만 아쉽게도 이뤄

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북평화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하신 바 있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양 국가가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작년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을 때는 남북한뿐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의 개방적 대화와 인도네시아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날 포럼에서 제안했다.

1만7천여개 섬, 300여개 종족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모든 민족·지역·종교·문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5개의 원칙을 ‘뻘짜실라’라는 건국이념으로 선포했다.

5개 원칙 중 하나인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적합할 것이라고 소개한 것이다.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제주도민’으로 선정되고,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낸다.

그는 투쟁민주당(PDI-P)의 총재로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당선되는데 핵심 후원자 역할을 한 실세이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포럼을 공동 주최하면서 메가와띠 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연합뉴스]

東갈리만판, 3개 인프라 사업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 요청



인도네시아 동부 갈리만판 주정부는 3개의 인프라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중앙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주 예산만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8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3개 사업은 주도 사마린다(Samarinda)의 홍수 대책 사업, 사마린다-본팡(Samarinda-Bontang) 고속도로

건설 사업, 빠세르(Paser)군의 랍바간(Lambakan) 댐 건설 사업이다. 동부 갈리만판 주개발 행정 기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주 예산이 감액됐다며 이 3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마린다-본팡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3년 이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건설비 11조 루피아 전후로, 토지 취득 비용은 3,000억~4,000억 루피아를 전망하고 있다.

랍바간 댐은 높이 72미터, 총저수용량 7억 1,863만 입방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6조 루피아를 예상하고 있다. 2개 군 총 1만 6,000헥타르 이상의 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印尼 내무부 “새로운 수도는 행정 중심지 역할로”

짜조 꾸몰로(Tjahjo Kumolo)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갈리만판 섬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새로운 수도는 어디까지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자 현지 매체 펠보가 보도에 따르면 자치 단체로 짜조 꾸몰로(Tjahjo Kumolo)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

짜조 꾸몰로(Tjahjo Kumolo)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갈리만판 섬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새로운 수도는 어디까지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12일자 현지 매체 펠보가 보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로써 수장을 두지는 않을 생각이다.

짜조 장관은 이전 계획을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기획부(바빠나스, Bappenas)와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새로운 수도는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 뿌뜨라자야와 같이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도에서는 수장을 선택하는 지방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당초 바빠나스는 중부 갈리만판, 남부 갈리만판, 동부 갈리만판 중 하나를 수도 이전



▲ 짜조 꾸몰로(Tjahjo Kumolo)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

처로 결정하고 내년에 토지 취득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도의 개발은 2021년부터 2045년까지의 25년간을 3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2024년 이전을 시작해 2045년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인도네시아 새 수도 이름은 ‘조꼬그라드’ ? ... 논의 활발

보르네오섬 이전 발표에 찬반 논쟁부터 이름 붙이기까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도를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반 의견부터 새 수도 이름까지 다양한 논의가 불붙었다.

자카르타 주민들은 서울 주민들이 그랬듯이 수도 이전에 관해 찬반이 엇갈린다.

자카르타에서 나고 자란 살림은 “수도 이전이 자카르타의 공해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카르타 하늘은 늘 뿌옇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이라고 28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살림은 “처음부터 자카르타에 살았던 사람은 수도 이전을 찬성할 것”이라며 “자카르타에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수도 이전을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카르타 주민 수시아는 “작년부터 자카르타에서 수차례 지진을 느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수도를 재난에 대비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자카르타의 과밀화 해결과 재난대비, 다른 지역과 균형 발전을 이유로 꼽는다.

반면, 자카르타에 투자했거나 사업을 하는 이들은 손실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량음료 판매업자 아민은 “자카르타가 수도인 게 더 좋다. 오래전부터 수도지 않았느냐”며 “수도가 이전하면 사업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된다”고 CNN 인도네시아에 밝혔다.

법대생 알리프는 “정부가 자카르타의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열대우림과 오랑우탄으로 유명한 보르네오섬에 새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자연환경이 파괴될까 봐 우려한다.

수도 이전 부지를 두고도 보르네오섬 동부가 최선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야당인 그린드라당은 “우리는 수도 이전에는 동의하지

만, 너무 멀리 가지 않길 바란다”며 자카르타에서 48.7km 떨어진 보고르의 종골(Jonggol)을 수도 이전지로 제안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들은 새 수도의 이름을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름을 새 수도 이름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꼬그라드’(Jokograd), ‘세인트 조코버그’(Saint Jokoburg) 등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수도 이전지가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북 쾰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카르타네가라(Kutai Kartanegara)군 일부라고 발표했다.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3개 국가의 영토로 나뉘어 있다. [연합뉴스]

출입차 확대 계획에 “물류 비용 상승, 대기오염 악화” 우려 목소리 높아

자카르타특별 주정부가 주요 도로에 도입한 차량 진입 규제 방법인 출퇴근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물류협회(ALI)는 택배 요금이 20% 정도 상승하는 등 물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오토바이가 출퇴근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출퇴근제 확대 후에는 승용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반대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ALI의 한 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자동차의 출퇴근제를 확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오토바이를 택배 차량으로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짐의 양이 적어 비용이 상승한다”며 “사업자의 경우 오토바이를 추가 조달해야 하고, 택배 요금은 업계 전반에 걸쳐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는 자동차의 통행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수가 많은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TI의 관계자는 “출퇴근제의 확대는 대기오염 대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환경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심부 메단 르르데가 바랏 거리와 띵린 거리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했을 때 규제 전과 비교하여 교통량이 감소했으며, 평균 시속이 26.3km에서 30.8km로 개선되기도 했다.

MRT 자카르타-서울 메트로, 업무협력 MOU 체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량 고속수송시스템(MRT)의 운영 회사인 MRT 자카르타(PT MRT Jakarta)와 한국의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는 지난 15일 도시 철도의 운영·정비에 관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MRT 자카르타가 이날 발표한 양사의 협력 기간은 2년으로, 운영통제센터의 개발과 운영, 차량과 차량 기지의 정비 능력 제고, 빅데이터의 자동 분석 시스템 구축,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의 운용 등의 분야

에서 협력한다. MRT 자카르타의 윌리엄 사장은 “운영 노선이 많은 서울 메트로에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으며, 특히 차체에 센서를 장착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사는 양국 엔지니어의 상호 교류 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동산 홀딩스 제 2의 도약을 알리는 준공식 열려 “제2의 조국 인니서 친환경 지속가능경영하겠다”



▲ 동산 홀딩스 손한명 대표

지난 30일 동산 홀딩스는 반 췌 주 땅그랑 군 잡배 지역에 제 2의 도약을 위한 새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전조영공사를 비롯해 재인도네시아 박재한회장, 땅그랑반튼한인회 채만용회장 등 많은 관계자와 내외빈이 참석해 동산홀딩스의 거침없는 도전에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다. 새 공장은 총 부지 8.2헥타르(ha)에 공장건물 1.2헥타르로 총 1,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월간 300톤 또는 150만 야드의 원단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손 대표는 “패션의 주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라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납기에 속도를 높

여야 하는 시대인 만큼 기존 30일 납기에서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일 이내에 납품하여 고객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 페트병을 원료로 만든 원사를 혼합 사용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한다”며 “하루 500톤 사용하는 물을 100% 바이오 박테리아 공법을 사용하여 친환경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제 2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손 대표는 항상 공장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현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 직원들은 인사성이 밝다. “곁따마다(곁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

가기)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었다. 동산홀딩스는 신발, 장갑, 가방, 헬멧 내부 충전제 등에 사용하는 원단을 제조하는 업체다. 1999년 설립된 동손인더스트리가 전신이며, 올해 새 공장을 신축하면서 동산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출발을 시작했다. 동산홀딩스는 원사를 구입해서 직조기계로 생지를 직조한 후 염색하고 열처리까지 완료한 원단을 생산한다.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동산홀딩스 제품은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의 인증을 받았다. 또한 재생원사를 일정 부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의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예리한 직관력과 예지력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원을 만들어어나가는 동산홀딩스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인기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銀, 인니 은행합병 승인받아... 9월 'IBK인도네시아은행' 출범

기업은행이 'IBK인도네시아은행' 출범의 9부능 선을 넘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아그리스(PT Bank Agris)' 은행과 '미프라니아가(PT Bank Mitraniaga Tbk)' 은행의 합병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합병 승인은 인수 승인 이후 8개월 만으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두 은행을 인수한 바 있다. 두 은행은 모두 자카르타에 본점을 둔 상장은행이다. 아그리스는 17개, 미프라니아가는 13개의 전국 영업망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수 승인에 이어 합병 승인 역시 빠르게 이뤄졌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 쌓은 역량을 인정받아, 현지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이번 승인으로 기업은행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해외은행 인수합병(M&A)이라는 과실을 거두게 됐다. 기업은행은 내달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외환 전담부서와 한국데스크 등도 신설해 현지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지 중소기업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동반자금융을 강화하고 30개의 영업망을 2023년까지 5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도진 행장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사업 확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IBK아시아금융벨트' 구축을 추진해왔다. 기업은행은 베트남 지점의 법인 전환, 미얀마 진출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IBK아시아금융벨트를 완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록,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한-인니 5km 마라톤 · 걷기대회

“한-인니 함께 해요” ...자카르타서 마라톤 · 걷기대회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경기장 일대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인도네시아-한국 친선협회(KFA)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 5km 마라톤 · 걷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박재한 한인회장은 “한국 광복절과 인니 독립기념일을 맞

아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니, 전기 제품 전반에 현지 조달 비율 기준 설정 방침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 제품에 대해 현지 조달 비율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생각을 표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등을 수신하는 TV 수신기의 현지 조달 비율을 최소 20%로 하는 규정을 제정했으며, 산업부도 전기 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내세울 계획이다.

27일 현지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과 유통이 많은 전기 제품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

산업부 금속 · 기계 · 교통 · 전자(ILMATE)국의 자누 전자 통신 산업 과장은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에는 갈 곳을 잃은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

으며, 수입 전기 제품은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것이 ‘현지 조달 비율 규정의 설정’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자누 국장은 국내기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이하 SNI)의 취득을 의무화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생각도 내비쳤다.

이달 중순 산업부는 밥솥과 믹서기, 급수장치, 냄비와 같은 조리 가전에 대해 SNI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을 연내에 공포할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한 정부가 저급 수입 제품을 규제하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21세기 세계 인구 지형을 바꾸는 '블랙 아프리카'

20세기 지구촌은 유례없는 인구 폭발을 경험했다. 그 1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4배가 늘었다. 21세기 들어서도 한 해 8천만명이 늘어 2019년 지구촌 인구는 77억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 올해 발표한 유엔 인구 전망 보고서는 2100년 109억명에서 세계 인구가 정점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확률은 27%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점 시기는 오히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100년 인구 예상 규모가 2년 새 3% 줄어든 점은 이런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20세기 초반 6명이던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한 여자의 평생 출생아 수)은 현재 2.5명으로 떨어졌다. 2070년엔 인구 유지선인 대체출산율(2.1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 대체출산율을 밑도는 나라가 90개국에 넘는다.

그런데 지역마다 출산율이 1명에서 7명까지 편차가 무척 크다. 이런 격차가 이어지면 21세기가 끝날 무렵 세계 인구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바뀔까?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서 맞을 가까운 미래다.

무엇보다 인구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간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빈국이 몰려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새로운 인구 동력의 핵심이다.

아랍권의 북아프리카와 구별해 '블랙 아프리카' 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유엔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늘어나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사람들이다. 인구 증가율 최상위 20개 나라 가운데 19개 나라가 이곳에 있다.

현재 10억명인 이 지역 인구는 2050년 20억을 넘어선다. 2060년대 초반엔 중국이 속한 동·동남아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지역으로 올라선다. 2100년엔 38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가장 큰 힘은 역시 높은 출산율이다. 현재 이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4.6명이다. 출산율 7명인 니제르는 30년 후 인구가 3배로 불어난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인 나이지리아 인구는 2050년 4억명으로 2배가 된다. 그때쯤 미국을 제치고 인구 3위로 올라선다. 콩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합쳐 이 지역 4개국에 2100년 인구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 지역별 인구 순위 1~3위가 21세기 후반에 완전히 뒤바뀐다. 출처 : 유엔 인구 전망 보고서(2019)

대부분의 지역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문제는 만연한 빈곤이다. 이

들은 서구 열강의 자본축적 밑거름이 됐다. 작금의 인구 급증은 세번째 집단

에 넘쳐나는 정보들은 이 지역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미래 도전을 자극할 것이다. 희망의 동력이자 갈등의 불씨다.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이들의 욕구는 노동력 감소에 고민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수출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 경제는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대비해야 할 흐름이다. 인구 변동은 사회 변화의 근원이다.

인구 구성과 규모의 변화는 처음엔 시장을 바꾸고, 이어 산업을 바꾸고 나아가 정치와 문화를 바꾼다. 모든 변화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블랙 아프리카' 에 휘몰아칠 인구 소용돌이는 어디를 향해 움직일까?

합계출산율 4.6명 '인구의 화수분'
2060년 최대 인구 지역으로 부상
2100년엔 세계 인구 3분의 1까지
젊은 아프리카는 어디로 분출할까

덕분에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 됐다. 25세 이하 인구 비중이 62%나 된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중위연령이 20세가 되지 않는다. 출산율 1위 니제르는 15.3세다. 세계 평균의 절반이다. 주력 노동인구인 25~64세 비중도 현재 35%에서 2100년 50%로 높아진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 빈곤층 인구는 6억명에 이르는 세계 빈곤층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 달리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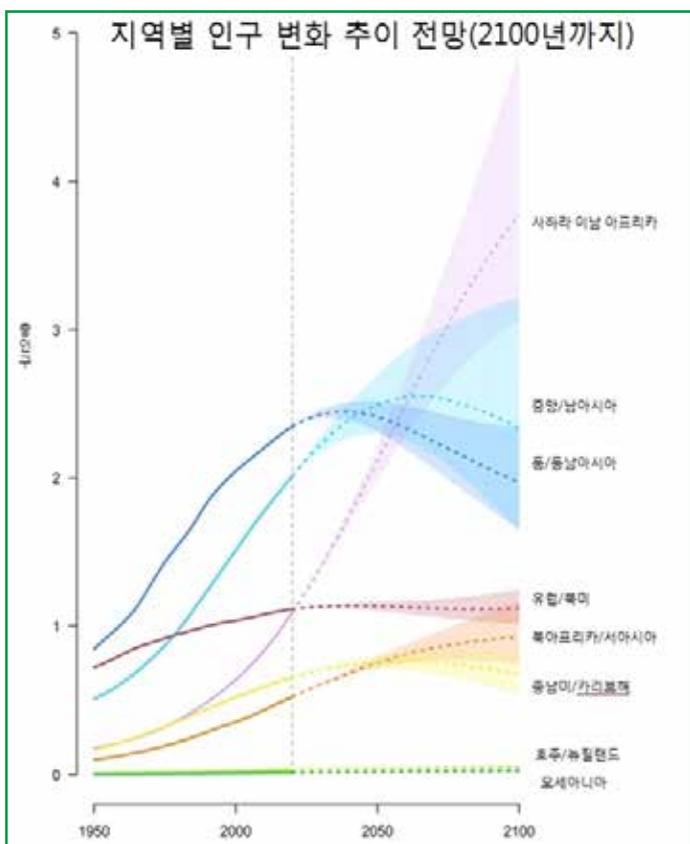
빈곤층이 늘고 있는 전 세계 18개국 가운데 14개국이 이곳에 있다. 인구 7위인 나이지리아는 빈곤층 인구에선 세계 1위다.

세계은행은 2030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전 세계 빈곤층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빈곤층의 중심에 젊은이가 있다. 대다수가 농촌 출신인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려 한다. 국내에선 찾기가 어려워 많은 이가 해외로 눈을 돌린다.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외이주자가 늘어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사하라 이남 국가다. 이 지역 출신 해외 이주민 수는 2010~2017년 50% 이상 늘었다. 전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인류가 아프리카를 집단으로 떠난 사건은 두 차례 있었다. 첫번째는 자연환경의 급변이 촉발했다. 7만년 전 화산 대폭발로 기온이 장기간 푹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전 지구에 퍼지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노예무역이었다. 16~19세기에 1200만명이 대서양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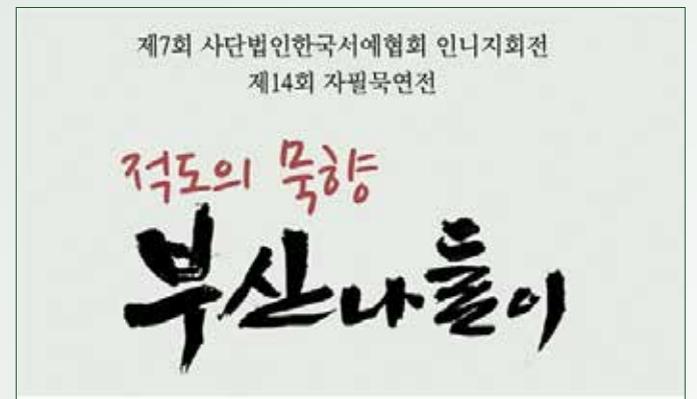
이동을 부를까?

유엔은 2020년대 안에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보 격차 해소가 미래의 삶의 질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에서다.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 '블랙 아프리카' 다. 인터넷



▲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의 중위연령은 대부분 20세가 안 된다. 픽사베이

자필묵연 <적도의 묵향, 부산나들이> 전시회 연다



사단법인한국서예협회 인니지회 '자필묵연' 이 고국의 가을 하늘 아래서 '적도의 묵향, 부산나들이'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리며 9월 17일부터 20일까지다. 자필묵연 전시회는 14번째 이자 지난 2015년 '서울나들이' 에 이어 두번째로 갖는 귀국 정기전이다. 한국서예협회 인니지회 '자필묵

연' 의 지도선생 인재 손인식 작가를 비롯한 22명의 회원들의 50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준비에 한창인 손인식 작가는 "인도네시아에서 타국 생활 중에 틈틈이 가꾼 묵향을 고국에서 나눌 생각에 즐겁고 설레인다. <부산나들이>에 오셔서 가을 정취 속에 <적도의 묵향>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 며 소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첫 '외국인' 대학교 총장으로 조장연(67)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조 총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이버한국외대 부총장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 최초 사이버대를 설립하고, 이 대학교의 총장을 맡게 됐다"며 "다들 불가능이라 했던 일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있지만, 사이버대학교는 하나도 없다.

인가증을 주고, 그를 외국인 최초의 대학교 총장으로 공식 소개했다.

조 총장의 선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교육계에서는 '외국인이 대학 총장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사립대학교라서 정부가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총장을 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총장으로 모

아시아사이버대학교는 경영학, 회계·세무,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디지털커뮤니케이

인니 첫 '외국인' 대학교 총장에 조장연 외대 명예교수

“사이버외대 부총장 경험으로 인니 첫 사이버대 설립”



▲ 인도네시아 첫 '외국인' 대학교 총장 선임된 조장연 명예교수(오른쪽)

조 총장은 2년 전 외대에서 은퇴한 뒤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온라인 교육기업 인코르(inkor)를 설립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현지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조한 끝에 작년 말 사이버대의 설립에 관한 법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주고, 대학원 진학이 가능해졌다.

조 총장은 "인도네시아는 섬이 1만7천여개로 동쪽 끝 섬에서 서쪽 끝 섬까지 거리가 서울~자카르타와 비슷하다"며 "대학 진학률이 33%에 불과하고 가난의 대물림이 되고 있어 무엇보다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21개의 사이버대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 교육, 사이버대학이 인도네시아 교육 문제의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도움을 주고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총장은 인도네시아민족대학교(UNAS)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코르가 절반씩 투자해 '아시아사이버대학교(Universitas Siber Asia·USA)'를 내년 2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하마드 나시르 인도네시아 연구기술고등교육부 장관은 전날 발리에서 열린 국가기술의 날 행사에서 조 총장에게 아시아사이버대학교의

선·미디어, 정보엔지니어링 등 5개 학부로 시작하며, 11월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해 개교 5년 안에 학생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조 총장은 "현재 33%에 불과한 인도네시아의 대학 진학률을 사이버대를 통해 10년 내 50%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교수와 티칭(teaching) 교수로 나뉘, 티칭 교수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영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1977년 외대 행정학과 졸업 후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네브래스카주립대 교수를 하다가 1996년부터 외대 경영학과 교수,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원장, 사이버외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한국문화원 '제1회 한글 디카시 공모전'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한국 디카시 연구소는 2019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국과 한글을 사랑하는 주재국민 및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제1회 인도네시아 한글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유로운 주제로 오는 9월 27일 까지(금, 16시 마감) 접

수링크 (http://bit.ly/DICA-POEM)로 공모하면 된다. 결과는 10월7일(월)에 SNS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다.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디카)와 시의 합성어로, 한 장의 사진과 시가 어우러져 한편의 시로 완성되는 멀티 언어예술이다.

대한항공, 日노선 대폭 줄이고 동남아·中노선 늘린다

국적항공사 8곳 모두 日노선 줄여... 감축 노선 60개 넘어



▲ 대한항공 보잉 787-9[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 노선 수요 감소를 고려해 일부 노선의 공급을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달 16일부터 주 14회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 운휴에 들어간다.

11월 1일부터는 주 3회 운항하는 제주~나리타 노선과 주 4회 운항하는 제주~오사카 노선도 운항을 멈춘다.

한시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노선도 있다.

주 3회 운항하는 인천~고마쓰(小松) 노선과 인천~가고시마(鹿兒島) 노선은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 5회 운항하는 인천~아사히카와(旭川) 노선은 내달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감편 노선도 있다. 인천을 기점으로 주 28회 운항하던 오사카(大阪) 노선과 후쿠오카(福岡) 노선은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각 주 21회로 감편한다.

또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 7회 운항하던 인천~오키나와 노선은 주 4회로, 주 14회 운항하던 부산~나리타(成田) 노선과 부산~후쿠오카 노선은 주 7회로 각각 횡수를 줄인다.

대신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 수요 감소로 여유가 생긴 공급력을 동계 일정 시작에 맞춰 동남아시아·대양주·중국 노선 등에 고루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0월 27일부터 인천~클락(필리핀) 노선에 주 7회 신규 취항한다.

또 인천~다낭(베트남) 노선에 주 7회를 추가 증편해 총 주 21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치앙마이(태국) 노선과 인천~발리(인도네시아) 노선도 주 4회를 늘려 총 주 11회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노선에는 신규 취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인천~장자제(張家界) 노선에 주 3회, 인천~항저우(杭州) 노선에 주 3회, 인천~난징(南京) 노선에 주 4회 각각 신규 취항을 추진 중이다.

또 인천~베이징(北京) 노선에는 주 3회가 늘어난 주 17회를 운항할 계획이다.

대양주 노선인 인천~브리즈번(호주) 노선도 주 2회를 늘려 총 주 7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선 일부 노선의 공급도 늘어난다.

포항~제주노선이 주 7회 신규 취항하며, 울산~제주 노선은 주 2회 늘어난 총 주 7회 운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말 대한항공은 한일관계 악화와 이에 따른 항공 수요를 고려해 다음 달 3일부터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여 만에 일본 노선 운항을 대폭으로 축소하는 추가 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7월 중순 이후 지속하는 일본여행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조정"이라며 "이번 노선 조정은 정부 인가 조건으로, 정부 인가를 받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보이콧 재팬'의 여파로 일본 노선 여객 수요가 감소하자 항공사들이 앞다퉈 일본 하늘길 축소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적 항공사 8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모두 일본 노선 감축 결정을 내렸다. 감축 대상에 포함된 일본 노선은 60개 이상에 달한다.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KITA) 인도네시아에서 K-푸드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해수부와 공동으로 '2019 K-Food Festival' 개최



▲ 사절단 단체사진(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8.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9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국내 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과 제품홍보 지원을 목적으로 23일(금) 자카르타 페어몽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우수 수산식품 기업 16개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회를 시작으로 현지 진출 지원 세미나(24일), 또 24일(토)~25일(일)에는 클라빠가딩 롯데마트점에서 양일간 인도네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진출한 한국 유통기업인 롯데마트, 무궁화, K-mart와 현지 프리미엄 마켓인 캬치, 그랜드럭키 등이 참가하였고 MNC GS홈쇼핑을 포함 유명 홈쇼핑 기업, 불닭볶음면 유통기업 등 현지 우수 식품 유통기업 약 50여 개가 대거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16개사와 1:1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참가업체 중 인삼차 제조업체인 '자연드림'은 상

담회에서 만난 현지 바이어와 현장에서 제조기술협조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24일에는 참가기업 16개사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지원에 관한 맞춤형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도네

시아 소비문화, 할랄, 식약청(BPOM) 인증 교육 및설명, 상품별 진출전략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또한, 24~25일 양일에는 롯데마트 클라빠가딩점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우수 수산물, 식품 무료 시식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과 식품을 홍보하고, 현재 인니시장에서 열풍인 떡볶이, 주먹밥 등 한국수산물을 활용한 쿠킹쇼를 진행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공략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양일간 진행된 시식회에서는 약 2천 여명의 인도네시아 현지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한국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500여개

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수산, 식품에 대한 시장성평가 기회도 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류와 K-POP,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소득 상승으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 식품, 화장품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억 6천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음료 시장은 우리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소 둔화한 한국 식음료 수출시장의 새로운 돌파구와 파트너로 매우 적합하다.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김영준 지부장은 "2억 6천 인구의 식음료 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인지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식



▲ B2C 시식회 모습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당들은 이미 많이 진출해 있고 떡볶이 열풍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新남방 정책과 아세안 할랄시장의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에 우리기업의 식음료 산업 진출이 더욱 약진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녹색기술로 인니 ‘산더미 같은’ 쓰레기 고민 해결”

자카르타에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 …4년간 20억원 투입

2억7천만 명의 인구가 쏟아내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기술평가용원에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 (GTPI)를 개소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캄보디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 6개국에 한국의 녹색기술을 전수하는 거점센터를 설립했고, 이번에 자카르타에 7번째 센터의 문을 연 것이다.

캄보디아 센터는 22개 마을에서 식수장치와 정화조 시범



▲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 개소식(GTPI 제공=연합뉴스)

사업을 했고, 라오스 센터는 메콩강의 민물고기 사업화를 하는 등 이들 거점센터는 개도국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돕는다.

인도네시아 거점센터는 자원순환·신재생에너지·물·농업·재난재해 등 5가지 분야에서 ▲ 녹색·기후기술 현지화 실증연구 ▲ 기술사업

화 지원연구 ▲ 기술정보 제공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폐기물 소각발전소 설립·운영과 관련한 각종 기술과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발전소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까지 12개의 폐기물 소각발전소를 가동해 하루에 1만6천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최대 234M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개소식에서 “거점센터가 녹색·기후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거점센터가 한-인니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교두보를 맡아 녹색 기후기술 분야부터 재난 대응, 농업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에는 4년간 5억원씩 총 20억원이 투입되며, 최대 10명의 한국 직원·전문가가 파견된다.

[연합뉴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KT&G, 인니 커피 직업훈련학교 지원...현지 청년 일자리 창출



KT&G(사장 백복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다.

KT&G는 지난 27일 자카르타 소재 인니 경제조정부에서 현지 정부 유관기관, 국제구호개발 NGO와 커피 직업훈련학교 '커피랩(Coffee Lab)' 후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KT&G는 '커피랩'에서 실시

되는 커피 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교육 개발, 커피산업 종사자 워크숍 개최, 현지 청년들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도 도울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커피 세계 4대 생산국이나 커피산업 인프라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커피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KT&G는 인도네시아 커피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 현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커피 직업훈련학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KT&G는 이에 앞서 '함께하는 기업'의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주거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외봉사단 400여명을 파견했다. 2014년 자카르타

에 한-인니 문화교류를 위해 '한국어학당'을 설립했다.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상상유니브'를 설립하고, 현지 대학생을 위한 역량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8년에는 인니 지진피해지역에 구호금을 전달했다.

[매일경제]

왓츠업, 인니서 모바일 결제 사업 진출 계획



미국 페이스북 산하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업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내 진출을 목표로 여러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와 제휴 협의를 논의 중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왓츠업은 인도네시아 재벌그룹 리브그룹 산하의 전자머니 포인트 서비스 오보(OVO)

와 전자결제 서비스 고페이(Go-pay)를 다루는 배차 앱 대기업 고젝, QR코드 결제 서비스 다나(DANA), 링크아자(Linkaja)를 운영하는 국영 은

행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전자결제에 관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당초 2019년 말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왓츠업은 인도에서 앞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도네시아 상의 한국대표부 출범... “기업들 신할랄인증 지원”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출범식
28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이광연 대표가 출범식을 기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제공]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는 28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존니 와아스 부의장, 한국대표부 이광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대표부는 구체적으로 ▲ 양국 간의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관리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양국 간 교류 증

진 ▲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지원 ▲ 양국 기업 간 사업 진출 교두보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이날 이광연 대표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과 정식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할랄인증서 발급 등 할랄산업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표부는 10월 17일 신할랄인증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인증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처음 설립이 추진된 것으

로 알려졌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으로 변경된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제품, 유전자공학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한국대표부는 국내 기업들에 신할랄인증을 위한 제반 지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 등과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연합뉴스]

건협, 인니 대표단과 건설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 방안 논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국가건설개발진흥원 대표단과 회의를 갖고 양국 건설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9차 협상을 위해 방한했으며, 양국 건설업계간 협력사업과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고자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7



년 양국간 건설산업 협력증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건설개발진흥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설공무원 및 기술자 20여명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서울제약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인도네시아 허가

서울제약은 입에서 녹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이 인도네시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제약은 2017년 6월 인도네시아 제약사 소호(SOHO)에 스마트 필름 제조기술을 적용한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제품을 10년간 796만달러어치 공급하기



로 계약했다. 소호는 2015년 기준 연간 매출액 4천억원의 인도네시아 5위 제약사다. [연합뉴스]

두산인프라코어, 인니 국영 엔진기업과 손잡고 동남아 공략

BBI와 엔진 생산·영업 계약...현지 공장서 연간 1만6천대 생산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인 BBI와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엔진 신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바 북동부의 항구도시 수라바야에서 요욕 하디

사트리요노 BBI 최고경영자(CEO)와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 유준호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엔진 생산·영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영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BBI와 디젤엔진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앞으로 13년 동안 엔진의 단순·부분조립, 완전조립 등의 단계를 거쳐 BBI의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엔진 시장도 함께 공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두산인프라코어와 BBI가 생산할 선박용 엔진 모델

BBI는 연간 최대 1만6천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순·부분조립 생산공장을 마련했으며 향후 2만5천대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공장에서는 선박용과 건설기계용, 농기계용, 발전기용 등 인도

네시아 주요 엔진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들을 생산한다.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은 차량과 산업용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해 5만5천대에서 2025년에는 7만1천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준호 부사장은 “BBI 공장은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시장 공략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별 엔진 라인업에 맞춘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갖춰 다양한 엔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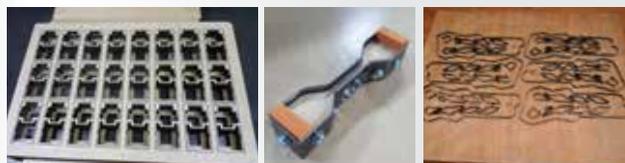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월드한식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유소년 축구대회에 한식을 알리다



▲ 행사에 참여한 KONI, 외식업협회 관계자(사진=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회 제공)

지난 8월 17일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회(회장 전성현)는 제74주년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을 맞아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KONI, 회장 Pak.Marciano, 한국국제특사 배응식)에서 주최하는 제1회 KONI배 12세 이하 유소년 축구대회에 선수, 학부모 그리고 KONI 조직위원회 임원 1,000명에게 불고기 덮밥, 닭강정, 떡볶이 그리고 무지개떡을 제공하는 ‘월드 한식 페스티벌(World HANSIK Festival)’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는 17일과 18일 양 이틀간 팡그랑

갈라뿌리 축구경기장 (Lapangan Sepak Bola Galapuri)에서 16개 팀이 경기를 펼쳤으며 17일 하루 한식 제공 행사에 1,000명의 인원이 한식을 맛볼 수 있었다. 전성현 회장은 ‘한국보다 이틀 늦은 광복절이지만 광복을 맞는 마음은 우리 한인 동포와 같이 큰 축제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개최하는 유소년 축구대회만큼 한식을 홍보하는데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대형 한식 풍선 캐

릭터와 푸드트럭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특히 김치와 불고기, 떡볶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 현지인을 모습을 보며 한식 홍보의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스럽게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직위원회 파우픽(Pak. Taufik)위원장과 전성현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식 홍보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월드한식페스티벌 행사에는 한식진흥원과 농수산식품부 그리고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회가 후원하였다.

부디 장관, 배차 앱 차량은 훌쩍제 제외해야



부디 까르야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11일 수도 자카르타의 주요 도로에 도입한 차량 진입 규제 방법인 훌쩍제의 확대 계획에 대해 배차 앱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 택시 차량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라고 현지 각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훌쩍제 규제의 대상은 검정색 번호판이 있는 일반 차량으로 택시 등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대중 교통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디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택시 차량이 제한 없이 규

제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면 배차 앱 차량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배차 앱 차량이 규제 시간대에도 지장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자가용이 배차 앱 차량으로 등록해버려 교통 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 2029년까지 2km마다 EV 충전설비 설치



인도네시아 교통부 소관의 자카르타수도권교통기구(BPTJ)는 2029년까지 수도권 내 2킬로미터마다 전기 자

동차(EV)와 전기 오토바이 충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BPTJ의 밤방 청장은 “대통령령 ‘2018년 제55호’에서 정한 수도권 2018~2029년 교통기본계획 따라 충전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카르타

와 반푼주 땅으랑시 기술평가 응용청(BPPT) 시설 내에 충전 설비를 설치했다. BPPT의 함담 리자 청장은 “충전 요금은 무료이다. 택시 최대기업 블루버드 등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충전 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은 국내 기준(SNI)이 정해진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대사관에서 알게된 새롭고 & 반갑고 & 중요한 소식

해외 방문 혹은 체류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다.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들이 전세계 투입 혹은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영사조력법”)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 □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게 된다. (동 제정법은 1월 15일 공포,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다만 그전에도 관련 지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면,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계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법적 근거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이다. 특히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경우 긴급히 병원 후송으로 인한 긴급하고 막대한 비용을 먼저 영사조력으로 선처리 할 수 있다. 만약 탄자니아에서 남아공이나 두바이 혹은 한국으로 급히 후송되어야 하는 경우 에어닥터/에어앰블런스를 불러야 하는데 그 비용과 절차를 감당하기 힘든데 이에 대한 영사조력이 가능해 진 것이다. (몇 년 전 나이지리아 거주하던 당시 에블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민들의 긴급 대피 건으로 정부인력까지 파견되었으나, 관련 법령이 없어서 간담회만 하다 끝난 경험이 있다.) ※ 동 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석현, 실훈,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 관련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12월 7일 가결한 바 있음.



제 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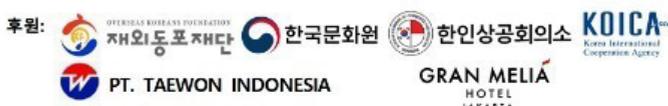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9년 8월 1일~9월 20일
3. 원고 작성 기준 : 산문 부문 A4 3쪽~5쪽 / 시 부문 2편 이상
- 순수 창작물(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미 취소 됨)
- 맑은 고딕, 10 포인트, 행간 160%로 작성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com로 동시 송부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표기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 추후공지
7. 통단 기회부여 : 성인부 대상 (한국문예지)
8. 시상 내역



상명	성인부		학생부		시상내역
	인원	시상	인원	시상	
대상	1	주인니대한민국대사상	1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1	KOICA 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1	인문창작클럽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한인기업 PT. TAEWON INDONESIA 상	1	인니기업 GRAN MELIA 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인니갤러리 EDWIN 상	1	인니갤러리 Widayanto 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	2	한인니문화연구원상	2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유럽의 아시아 지배를 마감하게 한 책 ‘막스허벨라르’의 저자의 이름을 딴 <물타폴리 상>은 인권을 주제로 한 뛰어난 작품에 중복시상 됩니다.

문의처 : 0816-190-9976 / 081-875-6217
sagongjkt@gmail.com / jemmachae@hotmail.com



한국 방문 인니인 상반기 11만2천명... '무슬림 프렌들리' 효과

14.9% 증가...설교자·할랄 화장품 모델 초청하고 기도 매트 배포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길거리 음식 체험 장면

관광 등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인이 올해 상반기 11만2천595명(승무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14.9% 증가한 수치로,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프렌들리 전략'이 특효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만명 가운데 87%가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다.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정기 성지순례(하지·Haji)를 다녀온 사람만 해도 23만1천명이나 된다.

이에 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를 신흥 잠재시장으로 보고 무슬림 관광객을 한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먼저, 히잡을 쓴 여성 관광객 캐릭터를 홍보용으로 만들었고, 휴대용 기도 매트를 대량으로 제작해 한국관광 홍보행사 때마다 배포했다.

김종훈 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장은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기도하고, 여행 중에도 기도한다"며 "휴대용 기도

매트는 나눠줄 때마다 인기가 좋다"고 25일 말했다.

관광공사는 또 인도네시아어로 한국관광 홍보 사이트(visitkorea.or.id)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 정보와 한국의 할랄식당, 기도실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유명 무슬림 설교전문가인 무하마드 누르 몰라나가 한국의 이슬람 사원을 비롯해 할랄 식당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률이 높은 라마단 기간에 공중과 TV에서 방송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달 인도네시아 최대 할랄 화장품업체인

와르다(Wardah)와 손잡고 20대 여성 인기 연예인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가 웹드라마 3편과 뮤직비디오, TV광고도 촬영했다.

배우 나타샤 리즈키(Natasha Rizky)와 가수 항기니(Hanggini)는 각각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60만명, 21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서울 밤도깨비 시장과 이태원·코엑스·창덕궁·한옥마을·여의도 봄꽃 축제장·홍대·N서울타워·청계천, 부산 국제시장, 강원도 정동진해변 등을 돌아다니며 촬영했다.

관광공사는 다음달 6~8일

자카르타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2019 무슬림 프렌들리 코리아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남이섬, 락피프랑스, 대명리조트부터 지자체, 여행사 등 40여개 기관·회사가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 관광 콘텐츠와 무슬림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를 홍보한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방문객 11만2천여명에 승무원까지 더하면 14만826명이 된다.

같은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승무원을 포함해 17만5천864명이다.

[연합뉴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서 '승부수' ...올해말 매장 51개로 확대

올 2분기 국내에서 500억원의 적자를 낸 롯데마트가 부진 탈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업을 대폭 강화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5개의 도매형 점포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인도네시아 매장이 51개까지 확대된다.

롯데마트는 2008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현지 특성을 살려 도매형 매장 and 소매형 매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는 해외로 눈을 돌려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도매법인의 B2B 사업 확장 등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지난 2분기 영업 손실은 34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270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국내점의 성장률이 3.6% 역신장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만 무려 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160억원의 이익을 냈다.

해외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올 2분기 3천3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90억원을 냈다. 지난해까지 적자를 봤던 소매부문



도 2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내수 경기 침체와 온라인으로의 소비 채널 이동, 정부의 영업 규제 강화로 국내 대형마트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이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롯데마트는 추가 진출 국가를 모색하기보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두 곳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올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낸 이마트도 2021년까지 베트남 법인에 4천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베트남 호찌민에 2호점을 내고 중장기적으로 5~6개 매장을 더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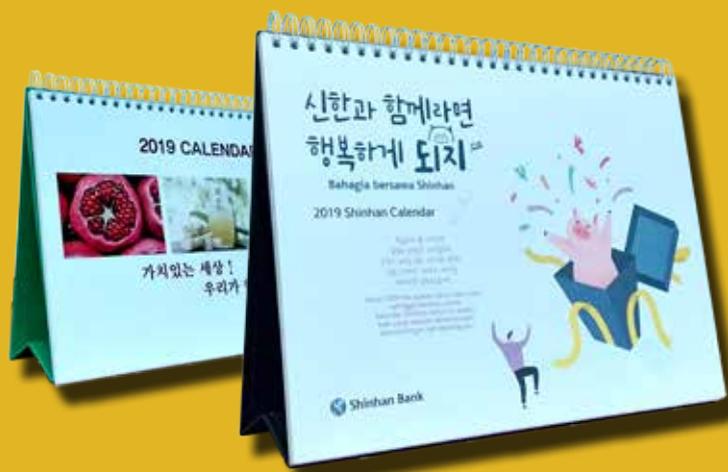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대형마트들의 해외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 수입도 짝잡하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